

## 就 任 辭



우리나라는 지금 國土分斷의 試鍊과 北韓共產集團의 挑戰속에서 驚異的인 發展과 86아시안게임을 成功的으로 完遂했습니다.

우리 國軍은 6·25動亂과 北傀의 끊임없는 挑發등 온갖 逆境을 이겨 韓半島의 安수와 平和維持에 注力해 왔으며, 이제 莫強한 戰力을 갖고 自主·自力防衛時代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國家施策은 軍의 精神戰力을 強化하고 陸·海·空 軍의 均衡있는 發展으로 初戰必勝의 臨戰態勢를 갖추고 韓·美 相互 防衛體制로 北傀의 戰爭挑發을 事前에 抑制하는데 主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傀는 어제도 오늘도 南侵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休戰線 도처에서 두더지처럼 南侵用땅굴을 파고, 또한 水攻作戰을 위한 金剛山댐을 建設하여 首都圈을 危脅하는 무모한 짓을 함으로써 더욱 戰爭挑發霧圍氣를 造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는 잠시도 警戒와 戰鬪態勢를 늦출수가 없는 狀況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現時點에서 우리의 生存權과 自主性을 保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防衛力의 增強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最新 國防科學技術 知識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防衛産業을 育成發展시켜 敵의 어떠한 挑發에도 즉각 對處하고 이를 粉碎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本人이 韓國防衛産業振興會의 常勤副會長으로 就任하게 되어 人事말씀을 올리며 防衛産業育成과 本誌 發刊事業에 더욱 全力하겠습니다.

1987年 2月 日

韓國防衛産業振興會

常勤副會長 柳 俊 馨